

# 여야 “3월 4~5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투표 대책 세워라”

(사전 투표일)

### 자가격리·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수십만명 투표 방법 없어 참정권 보장 초당적 대책 절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7일 3·9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

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미 하루 4만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로 볼 때, 선거일이 가까운 시점에는 수십만명이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일(다음달 4~5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자가격리자는 오는 9~13일 거소투표(우표투표)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한 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를 활용해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는 아니지만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을 때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으면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 투표 종료(오후 6시) 전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다.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엔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

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현행 선관위 지침 상으로는 전혀 없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거소투표 역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도 철거된 이후이기 때문에 투표에 이용할 수 없다. 또 투표일 하루 전(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도 투표가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 사례를 준용하면, 지자체에서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신청

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일 4만명에 육박하고 재택치료자도 10만명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하게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민주당부 장관·차관급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박승·정세현 전 장관 등 이재명 지지

### 역대 정부 장관·차관 인사 구성 ‘국정연구포럼’ 출범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역대 정부에서 장관·차관과 기관장 등을 지낸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연구포럼’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 후보만이 코로나19 위

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이끌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정연구포럼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회원 104명으로 구성됐으며 박 전 총재가 상임고문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 성경룡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공직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으로 국정운영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이라

며 “향후 국정운영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을 하고, 대선 공약·정책 평가와 자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인사말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일꾼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 온 이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도 “이 후보야말로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될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 캠프의 자문 역할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 단일화 시계 돌아갈까

### 국힘, 톱다운 답판론 vs 安 “진정성 없다”

### 尹 “배제할 필요 없어” 安 “공개적 말하는 자체가...”

야권 단일화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다. 단일화 카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대전제 속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7일 회의 후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전날 ‘단일화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인터뷰에 입장문을 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각을 세웠던 것에 비해 하루 만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면서 참모들도 주파수를 하나로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한상의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에 대해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윤 후보 측은 단일화 방법론에 있어 ‘고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에 기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

합뉴스와 “윤 후보 지지율이 안 후보의 서너 배”라며 “단일화를 하더라도 여론조사 경선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론조사 항목을 둘러싼 실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유권자들에 피로감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강하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론조사를 하니 마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추가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의 자체가 대선 승리에 마이너스”라며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대안으로는 두 후보 간의 일대일 담판이 거론된다. 후보 등록 마감일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무 단위에서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이지 말고 후보끼리 만나 통 큰 단일화 합의를 이루자는 ‘톱다운’ 방식의 아이디어다. 윤 후보도 최근 사석에서 “단일화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안 후보 측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야권 단일화가 이른 시일 안에 타결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 후보는 이날 정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겨냥,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자협회 “대선후보 4자 TV토론 11일 개최”

### 종편·보도채널 등 6개사 중계

한국기자협회는 11일 종합편성채널 4개사(MBN·JTBC·채널A·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를 주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4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 시간은 11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만이며, 사회자는 한국기자협회와 6개사가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4당 측에서 합의한 인물로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가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상호 자유토론을 통해 후보 간 검증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기자회견 측은 밝혔다. 아울러 기자회견은 회원사들 의견을 모아 후보들의 언론관도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해산공고(2차)**

당 회사는 2022년 1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되었습니다. 당 회사는 현재 해산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들은 2022년 4월 7일까지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상법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광주서부도매물류단지 주식회사 (200111-0051519)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우동길 35 (내원동) 청산인 박 옥 식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허홍(320321-XXXXXX)  
• 최후주소: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595번길13, 102동 1107호(운수동, 가천아파트)

피상속인 망 허홍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4호로 신청하여 2022년 1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2월 8일  
• 상속인: 허동일(590209-XXXXXX)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595번길 13, 102동 1107호(운수동, 가천아파트)  
• 신고기간: 2022. 2. 8. ~ 2022. 4. 20.  
• 채권신고처: 상속인 허동일의 주소

**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 제출공고)

(주)장보고조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중우(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2년 2월 4일 개최한 각각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갑’ (주)장보고조선  
전남목포시 산정광로 49-1(연산동) 대표이사 김병국  
‘을’ (주)중우  
전남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51 대표이사 정종국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성문(670102-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108번길 69-9, 302호(산용동)

피상속인 망 김성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4호로 신청하여 2022년 1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2월 8일  
• 상속인: 1. 김복영(390706-XXXXXX)  
2. 차상재(410606-XXXXXX)  
상속인 2주인은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파길 81-26  
• 신고기간: 2022. 2. 8. ~ 2022. 4. 20.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복영의 주소

**산행안내**

2월 13일 (일)

▲광주서산학회 2월13일(일) 강원도철원고석정&한탄강주상정리산도립기계방 트레킹 \*업무지역: 05:00, 동아병원05:05, 롯데백점05:10, 광주역05:15, 문예후문05:25, 비엔주차점05:30 \*다음카페: 광주서산학회 ☎ 010 7794 6920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70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